

美 쇠고기 수입

국내 쇠고기 시장 급속 잠식

최근 두달새

대형 유통업체 20곳서 판매... 年内 갈비 수입 확정뎌 더욱 심각

10배이상 쾡쾡

◇두달새 수입·유통 10배로 = 26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4월말 3년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 19일까지 839건, 1만3천376t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1만1천823t(768건)은 검역 합격판정과 함께 통관을 마쳐 이미 시중에 풀렸거나 유통을 기다리고 있고, 1천307t(59건)은 현재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246t은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또는 폐기됐다. 여기에는 등뼈(1건), 갈비등뼈(9건), 미국 내수용(2건) 발견으로 전량 반송된 12건과 췌장자 검출로 해당 박스만 돌아간 물량이 포함돼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 7월 이후 카길·스위프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한국 수출에 참여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편으로 수입이 이뤄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7월 16일 시점의 수입량(118건, 1천497t)이나 검역합격된 유통량(82건, 906t)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사이 모두 10배 정도 증가했다.

◇18개 대형유통업체서 판매 = 수입급증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판매·유통량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만 따져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홈에버·뉴코아·2001아울렛·GS백화점·GS마트·GS슈퍼·삼성프라자·탑마트·메가마트·롯데슈퍼·세이브존·700마트·동아백화점·그랜드백화점·태평백화점 등 18개다.

지난 7월 13일 롯데마트가 일부 농민·시민단체와의 마찰 속에서 처음 미국산 쇠고기를 팔기 시작한 지 두 달여만에 국내 주요 유통업체 상당수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연내 LA갈비 수입 가능성 '여전' = 우리 시장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는 곧 개시될 한미 간 새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갈비수입 등이 확정되면 더욱 거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길이 막히기 전인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수입량의 약 20배인 20만t에 달했고, 이 가운데 60% 정도가 LA갈비 등 뼈째 절단한 부위였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줄곧 우리측에 '살고기만,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수입조건을 고쳐 OIE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역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도 보장한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지난 7월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족위생 현지 실험 조사까지 마쳤다.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족방역협의회가 끝나는데로 우리측이 곧바로 준비절차에 착수하면 다음달 중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무리없이 진행될 11월 중순 이전 새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될 경우 국내 고시 기간 20일과 새 검역기준에 맞춘 미국의 수출준비, 수송기간 등에 소요되는 40일 이상의 시간을 감안해도 연내 LA갈비 수입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다시 증가

7월말 잔액 353조... 주택 대출은 둔화세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주택대출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집중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크게 늘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7천152억원이 늘어난 352조5천439억원으로 6월(7천28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2배 이상 컸다.

증가폭은 4월 1조3천66억원에서 5월 1천537억원으로 급격히 둔화됐으나 6월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이 신용대출에 주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가계대출-주택관련대출)은 7월 1조4천330억원이 늘어 전월 1천979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주택관련대출은 5월 1조2천388억원 감소에서 6월 5천309억원 증가로 돌아섰으나 7월 2천822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다시 둔화했다.

이는 7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및 콜금리 인상, 주택금융수요 위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455조9천715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9천77억원이 증가, 전월(2조56천948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가계대출이 7월 중 1조1천431억원이 늘어 전월(6천358억원)보다 증가폭이 컸지만, 이중 주택관련대출은 189억원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100대 상장사 사외이사 평균 월급 343만원

SK텔레콤 667만원 최고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00대기업 사외이사의 지난 상반기 월급이 평균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중 비공개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지난 상반기 월평균 급여는 343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권력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

는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상반기 사외이사들의 1인당 월평균 급여가 66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대차 617만원, 신세계 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LG전자와 S-Oil, 삼성SDI, 국민은행, LG, 엔씨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전자, GS, 아모레퍼시픽 등도 사외이사들의 1인당 평균 월급여가 500만원을 넘어 상위 4~11위에 올랐다.

반면, LS산전의 사외이사 월급여는 평균 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온미디어와 현대오토닉, 롯데칠성음료, 대한전선, 대한항공, 동양제철화학 등도 사외

■상장사 사외이사 평균 월급 (단위: 백만원)

순위	종목별	평균	순위	종목별	평균
1	SK텔레콤	6.67	9	엔씨소프트	5.40
2	현대차	6.17	10	삼성전기	5.17
3	신세계	6.00	11	삼성전자	5.00
4	LG전자	5.67	11	GS	5.00
4	S-Oil	5.67	11	아모레퍼시픽	5.00
6	삼성SDI	5.53	34	금호산업	3.67
7	국민은행	5.50	40	기아차	3.50
7	LG	5.50	80	현대하이닉스	2.33

이사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대에 머물러 하위 2~6위로 처졌다.

우리금융(317만원), 하나금융지주(300만원), 대구은행(300만원), 부산은행(250만원), 외환은행(200만원) 등 일반직원의 급여가 상위권 수준인 은행권은 사외이사 월급여는 500만원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100대기업 상위 20개사 사외이사 월평균 급여는 526만원으로 하위 20개사 월평균치 190만원의 2.8배에 달해 상하위간의 급여차이가 컸다. /연합뉴스



재활용 비누 받아 가세요. 광주신세계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브랜드 세월 기간동안 광주신세계에서 구매된 바구니와 정육 스티로폼 등 선물용 포장박스를 가져오는 고객(1인 3개 한정)에게 재활용 비누 2개씩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美 서브프라임 사태 충격과 한국증시 比·인이어 세계 3번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모기지 사태로 받은 영항의 크기가 세계 3위에 이를 정도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매다 팔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되는 양을 것 같다는 예상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투자자는 떠나지 않는다'는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불안심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39개 주요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17.4% 하락해 필리핀(-22.8%), 인도네시아(-19.3%) 등에 이어 3번째로 하락폭이 컸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급격히 유출됐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8월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작년 연간규모인 10조8천억원보다 많은 13조9천억원에 달했

고, 특히 8월에만 올해 전체의 60%가 넘는 8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월 중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이후 국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8월의 외국인 매도와 주가 하락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영항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19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 한 때 시가총액을 42.1%까지 치솟았던 외국인 비중은 2004년 7월을 고비로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 8월말 현재 31.8%까지 떨어졌다.

이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과 차익실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부동산 알박기' 못한다

10년이상 소유 토지도 매도청구 가능

내년 초부터는 민간 주택개발사업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고액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게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나머지 땅을 매입할 밖에 없으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저가 전세 아파트값 크게 올라

1·11대책이후... 가구수도 대폭 감소

1·11 부동산대책 이후 고가의 전세 아파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저가 전세 아파트는 값이 크게 오르고 가구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1월 11일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6.3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세가격대별 가격 변동률은 ▲3억원 초과 -0.11% ▲2억~3억원 1.07% 등 고가 전세는 값이 내리거나 소폭 오르는데 그친 반면 ▲5천만원 이하 8.66% ▲5천만~1억원 6.76% ▲1억~2억원 4.29% 등 저가 전세는 큰 폭으로 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저가 전세의 가격 상승세로 인해 저가 전세의 가구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천만원 이하 전세아파트 수는 1만8천701가구에서 1만1천464가구로 7천237가구(38.70%) 감소했고, 5천만~1억원 전세도 19만4천369가구에서 17만5천684가구로 9.61% 떨어졌다.

반면 ▲1억~2억원 전세의 가구수는 0.63%(57만3천262가구→57만6천652가구) ▲2억~3억원 전세는 9.42%(21만5천959가구→23만6천304가구) ▲3억원 초과 전세는 1.79%(12만4천926가구→12만7천157가구) 등으로 가구수가 늘었다. /연합뉴스

봉급쟁이 면세자 비율 10년간 18%P↑

과표 양성화제 도입 영항... 자영업자는 줄어

각종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봉급쟁이(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과표 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근로소득자(상용+임시)는 모두 1천297만3천명으로서 이중 면세자는 686만6천명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9%가 과세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35.1%)에 비해 1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95년에는 전체 근로소득자 1천109만7천명 중 과세 미달자는 389만9천명이었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종합소득자는 1995년에는 전체 350만7천명 중 60.4%인 211만9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1999년 60.1%(204만7천명) ▲2001년 52.6%(200만2천명) ▲2003년 48.7%(205만6천명) ▲2004년 47.5%(207만1천명)에 이어 2005년에는 437만명 중 47.4%인 205만5천명이 과세기준에 미달해 면세자 비율은 44.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그린벨	KTF광주서비스 CRM센터 정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7	042-223-4900
iAE 유력네트 광주지사	유학 상담 및 수속지원 관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233-8171
동양생명보험(광주Hybrid센터)	동양생명 하이브리드 FS(광주센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8	062-231-6720
☎골드드림정보통신	가맹점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527-2077
AIG손해보험	[AIG 순천 CS 센터]제3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2-750-5168
☎대선	영업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951-2775
광고뱅크	매킨토시 디자이너 및 포토/일러 가능한 초보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30	062-381-2411
잡코리아(광주,전남지사)	고객관리팀 정규직 TM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62-512-6212
IPNET	하니로텔레콤 광주 고객지원센터 영업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62-463-3691
맨앤유엔피부비교과	간호조무사 (경력 무관, IV 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17-606-7635
☎HRN	[광주,순천,목포]SK텔레콤 통신기술직 임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4	062-529-2671
동국건설(☎)	안전관리 경력자, 토목/건축(공무) 경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04	062-606-6500
C&S휘트니스그룹	휘트니스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04	062-973-3339
숙이퍼럴	매장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04	062-360-185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